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주민수, 최운정

다음주 독서: 배준영, 석우경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다음주 복사: 우상인 사비나, 강선우 마르가리타

이번주 미사해설: 전은숙 글라라, 김태진 하상 바오로

다음주 미사해설: 조은경 수산나, 조성익 토마스모어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홍유리 올리아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학부생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시 사제관 (12월 16, 30일, 1월 13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2시 45분 성당친교실 (12월 10, 23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8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댁 (12월 9, 23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미정

2 구역

매달 첫째주 토요일 미사후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요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 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오늘의 묵상

“내 안에 있는 황폐함은 무엇인가? /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은 무엇인가? /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은 무엇인가? / 내 안에 있는 고통은 무엇인가? / 내 안에 있는 힘겨움은 무엇인가? /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은 무엇인가? / 나를 초라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회 송봉모 신부님이 쓴 소책자 『광야에 선 인간』에서 묻는 질문입니다.우리 내면에도 바로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핍된 존재이기에 누구나 광야를 안고 삽니다. ‘광야에 선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죽기 살기로 광야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모으고 더 챙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광야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내면은 더 황폐해지고 우리 인생은 더욱 초라해지며 우리는 더 지쳐만 갑니다. 우리를 외롭게 하는 내면의 광야는 피할 수도, 다른 것으로 채울 수도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며 주님만이 희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희 베르나르도 (512) 698-6379

성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Facebook 그룹: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2011년 12월 10일

[대림 제 3 주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61, 1-2, 10-11

<제 2 독서> 테살로니카 1 서, 5, 16-24

화답송

◎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뛰노니, 그분이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음에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네.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 그분은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네.◎

◎ 알렐루야.

복 음

환호송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 알렐루야.

요한복음 1, 6-8, 19-28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요한에 이어서>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오늘의 성가] 시작: 92

봉헌: 511

성체: 501

파견: 97



생명의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대림 3 주일

서공석 신부 (부산교구)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서가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는 요한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있었고, 요한이 그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가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며, 예언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또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도 할당하지 않다.’ 이것이 오늘의 복음이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활동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례자 요한에 대해 먼저 언급합니다. 마르코복음서와 마태오복음서는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루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는 그 사실조차 적당히 얼버무리고 맙니다. 네 복음서가 하나같이 긍정하는 점은 요한은 예수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에 대한 복음서들의 이런 진술들은 예수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 것을 알립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초기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는 부담스러웠다는 것을 엿보게 합니다.

복음서들이 기록될 당시, 요한의 제자들도 그들의 스승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예수에게 세례를 베푼 요한이 세례를 받은 예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들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파견된 인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서는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인물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길을 고르게 하기 위해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비록 세례는 베풀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인물이라고도 말합니다. 복음서의 이런 언급들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겠다는 초기 신앙인들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 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요한 세례자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마태, 11,11)고 극찬하여 말씀하신 사실을 보면,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 운동에 일찍이 가담하셨던 분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운동은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 다른 세례 운동가들은 죄에서 정화되기 위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을 받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세례 운동에 공감하고, 가담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들이 전하는 바를 보면 요한은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마태 3,10; 루가 3,9)고 말하면서 엄하게 심판하실 하느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삶 안에 살아계시면, 그것이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루가 17,21). 예수님은 하느님이 그 함께 계심에서 아무도 제외하지 않으신다고도 가르쳤습니다. 하느님은 양 백 마리 중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는 목자와 같은 분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옆면에 이어서)

† 공지사항

- 오늘 미사 후에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목위원님들, 구역장님들, 성모회장님들은 미사 및 친교 후에 성당 사무실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루가 11,9,13). 예수님이 가르친 하느님은 심판하실 무서운 분이 아니라,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가 6,35-36).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 안에 하느님은 그 생명의 아버지로 살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느님을 별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섭게 심판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자비하신 하느님,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숨결, 곧 성령을 베푸셔서 우리도 자비로운 당신의 질서 안에 살게 하십니다. 하느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도 우리 주변에 당신의 은혜로움을 실천하며 살아서 당신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청해도, 찾아도, 두드려도 하느님은 반응하시지 않더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자녀가 어리고 미숙할 때,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 줍니다. 그러나 성장한 자녀는 자기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합니다. 부모는 성장한 자녀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해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말합니다. 사람은 “부모를 떠나 자기 배우자와 하나가 된다.”(2,24). 인간은 부모를 떠나서 비로소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인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떠나지만, 부모의 뜻을 받들어 삽니다. 자녀는 자기 일은 자기가 하지만, 부모와 마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부모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부모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생명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하느님의 영이 자기 안에 살아계시게 청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로운 시선으로 자기 주변을 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달라는 사람에게 주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모두 자비로운 하느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을 살아서 그분의 성숙한 자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에 맞게 하느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 -